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 12 호

백리

萬枝一根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영 섭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26년 4월 19일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홈페이지 : 사천이씨.com

우리 족보 우리의 역사



성균진사공파 제26세
대중회장 이 영 섭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중회에서 종인들의 일상을 알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12호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일년 동안에 주요 성과와 다양한 활동 소식을 함께 나누고, 구성원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소식지를 통해 우리 기관의 방향과 가치를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천(동성)을 본관으로 하는 우리 씨족은 고려 충열왕 때 송악군수를 역임하신 諱식(軾)祖를 시조로 받들고 대대로 국자진사에 합격하고 3세조 諱종(琮)祖는 문원공의 시효를 받은 명문 사족입니다.

우리 족보는 우리 가문의 계보를 기록한 문헌으로써, 개인사(個人史)를 넘어 집단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일차 사료입니다. 혼인 관계, 출생과 사망 기록, 거주지 이동 등은 당시 사회 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특정 시대의 사회사·지역사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족보는 단순한 가계 기록을 넘어 역사학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족보는 사회적 관계망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일한 혈연 집단을 확인하고, 혼인 규범이나 친족 관계를 규정하는 데 활용되며, 이는 사회적 질서 유지와 공동체 결속에 이바지합니다. 특히 전통 사회에서 족보는 신분과 위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학적으로 족보는 집단의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는 장치입니다. 선조의 업적과 가치관을 후손에게 전승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이는 집단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족보는 의례와 제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집단의 상징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족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통적 문헌 형태에서 벗어나 데이터베이스화·디지털 아카이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탐구에도 활용됩니다. 나아가 족보는 글로벌 시대에 혈연적·문화적 뿌리를 확인하고, 다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족보는 역사적 사료, 사회적 제도, 문화적 기억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학술적 필요성을 지니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공동체적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족보에 의하면 조선조에 6세조 穰는 성균생원으로 답양교도를 지냈고 대대로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특히 11세손 휘綸은 1526년 과거급제하였으며 휘 구암 이정(李楨)선생은 23세에 문과 별시에 장원 급제하여 정부 삼사를 두루 거쳐, 지방 관리로 부임하여 혁혁한 공을 이루어 3대 추증의 영광을 입었으며, 특히 경주부윤 재직시 서약서원을 창건하고 선현을 향사토록 하였으며, 순천부사 재직시 한훤당 김굉필을 추모하기 위해 임청대 복원과 옥천정사를 창건하였으며 한훤당의 유필을 수습하여 경현록을 발간하였다. 말년에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사천에 구암정사를 창건하였으며 세 서원 모두 사액 되었으며 지방관 재직 시 성리학 서적 23종 140여 책을 간행하여 많은 서원에 공급하여 성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들께서 앞으로도 종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9일

화창한 봄날 조원사에서



2026년 대종회 정기총회

I. 2025년 주요종무 보고

1. 조원사 춘계제향 행사 개최 결과

- 일 시 : 2025년 4월 20일(일) 11:00
- 장 소 : 대종회 회관(사당, 일원재)
- 참 석 : 80명 정도(대종회장 임원 종원)
- 행사주관 : 대종회장. 총무국장
- 소요경비 : 4,300,000원 정도
 - 제수용품구입비 : 1,000,000원
 - 오찬뷔페 : 2,500,000원
 - 천막사용료 : 500,000원
 - 기타지원금 : 300,000원
- 향족대 : 4,830,000원
- 행사내용
 - 초헌관 : 백인재공파
 - 2023년 주요 종무보고
 - 2023년 수입 지출 결산승인
 - 대종회 인터넷 전자족보 추진사항 보고
 - 기타토의(2024년 주요 종무보고)
 - 뿌리 소식지 발간(사업비 200백만원)



2. 구계서원 춘계제향 행사 개최

- 일 시 : 2025년 3월 26일(수) 10:00
- 장 소 : 구계서원(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60명 정도
(대관대유계회 회원, 사천이씨종인 등)
- 행사내용 : 초헌관-사천시의회 의장 김규현
- * 대종회 지원 : 협찬금 20만원, 화환 1점



3. 제14회 구암제·휘호대회 행사 개최 결과

- 일 시 : 2025년 5월 10일(토) 09:00【2026년도는 6.13. 개최】
 - 한시대회 : 10:00~12:00(120분)
 - 휘호대회 : 13:00~15:00(120분)
- 장 소 : 사천시 삼천포체육관
- 참 석 : 400여명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대종회장, 삼천포수협장 등 전국에서 참여)
- 주 관 : 사천문화원
- 후 원 : 사천시, 사천시의회
- 행사결과
 - 한시대회 장원 : 이응춘 대구 상금 200백만원
 - 휘호대회 최우수 : 조은영 사천 150만원
- * 대종회 지원 : 협찬금 30만원, 화환 1점【2026년도는 특별상금 30만원 추가지원】



4. 구계서원 정기총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10:00
- 장 소 : 사천읍농협 2층회의실(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60여명(구계서원대관대유계 회원)
- 총회결과 :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 이사장 선임권



5. 부산 화수회 정기총회 참석 격려

- 일 시 : 2025년 6월 1일(일) 10:30
- 장 소 : 해암 뷔페
- 참 석 : 화수회 회장 이상무 외 회원 70여명(대종회장 참석)
- * 대종회 지원 : 협찬금 20만원



6. 조원사 주변 수목 및 환경정비 작업 결과

- 위 치 : 조원사 주변 경내
- 작업시기 : 2025. 5. 13.~5. 17.(5일간)
- 참여인원 : 15명 정도
- 작업내용 : 조원사 경내 담장 주변 수목제거 및 연산홍 정비
조원사 입구 가시나무 및 느티나무 잡나무 제거
- 소요경비 : 186만원 정도
 - 크레인차량 임차료 : 400,000원
 - 엔진톱인부 : 800,000원
 - 전기톱구입비 : 230,000원
 - 잡부인건비 : 200,000원
 - 기타경비 : 230,000원



7. 조원사 건물내외 전기공사 결과

- 일 시 : 2025년 5월 14일
- 대상사업 : 일원재 내부 및 관리사 가로등 전구 LED 교체
- 소요경비 : 48만원

8. 조원사 목조 건물 화재보험 가입

- 가입일 : 2025년 5월 30일
- 대상물건 : 건물 7채(사당, 일원재, 관리사 등)
- 보험기간 : 2025. 5. 30.~2026. 5. 29.(1년간)
- 피해보상한도액 : 1억원
- 보험료 : 161,600원
- 보험가입기관 : 정동농업협동조합

9. 구계서원 구산사당 노후제기 주문제작 교체 및 고유제 행사

- 일 시 : 2025. 11. 24.(월) 10:00
- 장 소 : 구계서원(구산사당)
- 참 석 : 구계서원장 대종회장 외 8명
- 주요내용 : 고유제 초헌관-초헌관 이오수 23세(우소제)
 - 제기교체사항 : 3셋트(제상 위패함 향로대 제기)
 - 제작처 : 전북 남원업체
 - 나무제질 : 향나무
 - 소요사업비 : 820만

10. 구암총서발간에 따른 2차 대책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1:00
- 장 소 : 사천시장실
- 참 석 : 12명
 - 시행정 관계관 : 사천시장 문화관광과장 팀장 주무관
 - 대종회 : 대종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국장
 - 경북대학교 학계 : 정우락교수(문학박사) 외 3명
- 대책회의 결과
 - 당초 예산지원액 : 8억 기집행
 - 추가 예산요청액 : 5억(3회 걸쳐 지원키로 시장과의 약속하였음)

11. 2025 구암학 학술대회 개최

- 주 제 : 퇴계 이황과의 문학과 작도정사의 문화적 의미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4:30~17:30
- 장 소 : 사천곤양향교
- 참 석 : 180명도
- 행사내용
 - 진행(진행) 구계서원장 이은식
 - 기조발표 : 정우락(경북대)
 - 발 표 자 : 김남이(부산대), 김세호(경산국립대)
- 종합토론 : 좌장 정우락
- 토 론 자 : 백운용(대구교대), 최은주(한국국학진흥원)
- 저녁식사 : 이승열 제공



12. 대종회 파조대표 총무연석 회의 개최 상황

- 1차 : 2025년 7월 6일(일) 11:00
- 2차 : 2025년 8월 23일(토) 11:00
- 3차 : 2025년 12월 13일(토) 11:00
- 장 소 : 대종회 회관(조원사 일원재)
- 내 용 : 대종회 조보 편찬사업 및 파조별 회비납부협조당부 등

13. 2026년 구계서원 춘계제향 행사 개최

- 일 시 : 2026년 4월 13일(월) 10:00
- 장 소 : 구계서원(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60명 정도(대관대유교회 회원 사천이씨종인 등)
- 행사내용 : 초헌관
- * 대종회 지원 : 협찬금 20만원, 화환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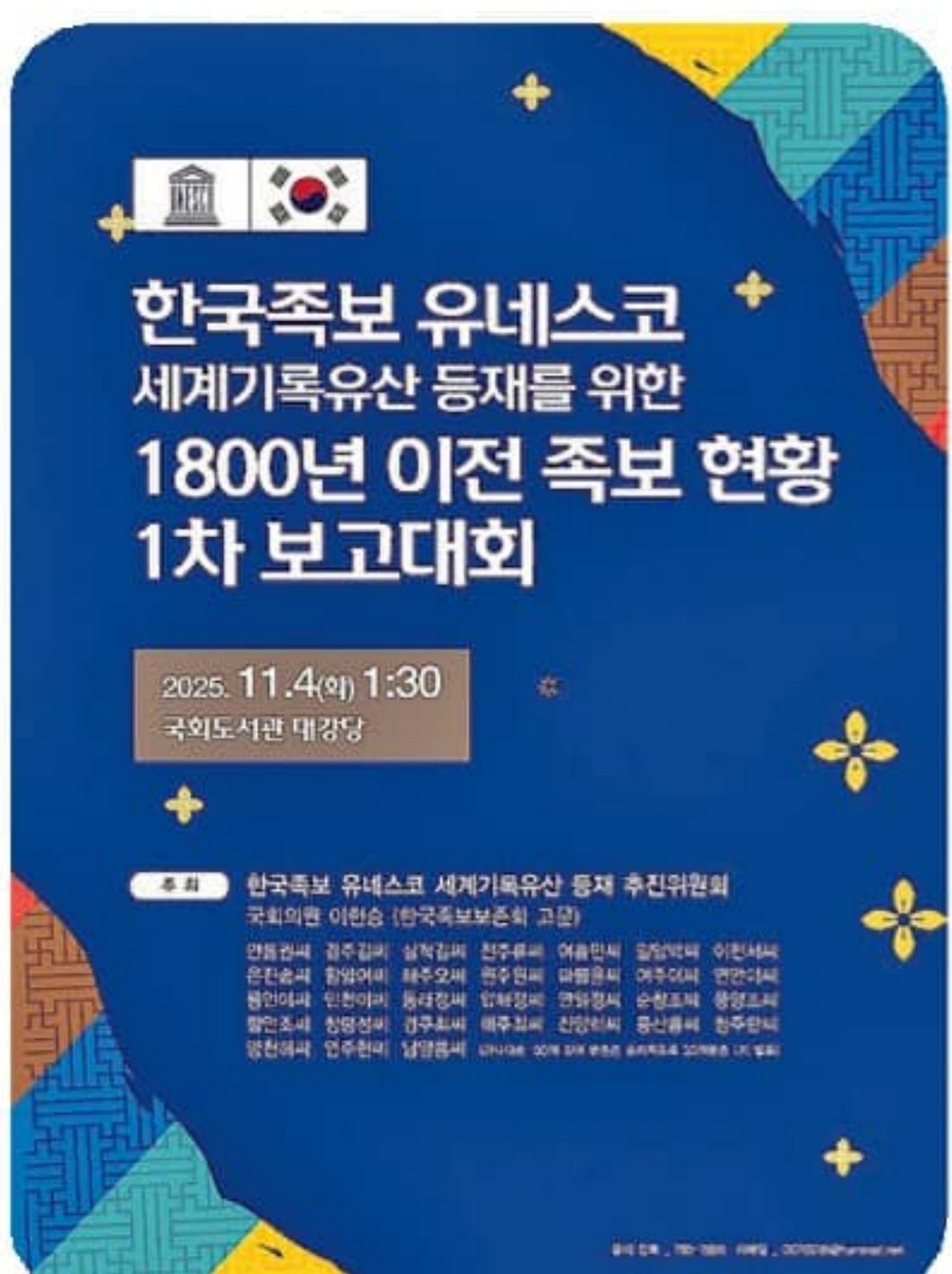


14. 구계서원 분기별 이사회 개최 상황

- 1분기 : 2025년 2월 22일(토) 11:00(아리랑)
- 2분기 : 2025년 6월 14일(토) 11:00(삼대한우)
- 3분기 : 2025년 9월 17일(일) 11:00(삼대한우)
- 4분기 : 2025년 9월 11일(목) 11:00(삼대한우)
- 내 용 : - 구암총서 발간관련 협의
 - 사천시청 교부금, 남동방전 운영비 지원신청
 - 구암학술대회 및 춘계제향 행사 협의
 - 구계서원 본건물 붕괴부분 보수 시급 논의
 - 구계서원 주변수목 정비 및 환경정비
 - 구산사비 문화유산청에 보물신청 협의 등

15. 한국 옛족보 세계유네스코 등재 추진

- 발대식 2025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회장 참석
- 운영위원회구성회의 위원 30명(이영섭 운영위원 선임)
- 1차 발표회 2025년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 회장 참석
- 2차 발표회 2026년 1월 15일, 회장 및 부회장, 총무국장 참석
- 3차 회 의 2026년 3월 9일, 유교문화진흥회, 회장(한국족보보존회 고문) 참석



II. 2026년도 주요종무 계획

1. 춘계제향

- 일 시 : 2026년 4월 19일(일) 11:00
- 장 소 : 대종회관(조원사)
- 인 원 : 약 120명
- 소요예산 : 450만원

2. 조원사 건물보수

- 일원재 천정재사 : 700만원

3. 조원사 내·외 환경정비 : 150 만원

- 노거수(소나무) 가지치기
- 연산홍 전정 등

4. 경조사비 : 70만원

5. 각종 지원금 : 100만원

6. 여비 : 70만원

7. 족보간행

8. 옛족보 경상남도 기록문화유산 지정 추진

9. 부리 소식지 발간 200만원

10. 구암제, 구계서원, 구암 시조경창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

참고자료 2025년 시조 제향 향족대 현황

파조명	성 명	향족대	파조명	성 명	향족대
참지공파	이종건	50,000	거합화수회	이용수	500,000
참지공파	이선영	50,000	거합화수회	이용수(회비)	500,000
참지공파	이종규	50,000	백인재공파	이석부	100,000
참지공파	이태희	100,000	백인재공파	이경환	50,000
참지공파	이효종	100,000	백인재공파	이남수	100,000
참지공파	이영기	100,000	백인재공파	이권식	200,000
참지공파	이서호	30,000	성균진사공파	이춘도	100,000
참의공파	이상무	200,000	성균진사공파	이준식	50,000
첨정공파	이흥기	100,000	성균진사공파	이진곤	200,000
우소재공파	이오수	100,000	성균진사공파	이성진	50,000
우소재공파	이대중	50,000	성균진사공파	이장도	50,000
우소재공파	이덕종	50,000	성균진사공파	이영오	100,000
우소재공파	이창문	100,000	성균진사공파	화암문중	300000
우소재공파	이청문	50,000	성균진사공파	이학식	100,000
백인재공파	이영기	500,000			
백인재공파	이동근	100,000	생원공파	이상석	100,000
백인재공파	이점판	50,000	생원공파	이성이	300,000
백인재공파	이판철	50,000	생원공파	이무식	50,000
백인재공파	이일석	100,000	선무랑공파	이영근	50,000
			총 합 계		4,830,000

오늘날의 法治主義와 儒學의 德治主義



대중회 명예회장
참지공파 제24세
이 선 영

120년 전 大韓帝國이 무너질 때에 선조들은 是日也 放聲大哭을 외쳐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근근이 傳統 文化의 계승과 자주독립을 외치며 저항했으나 별다른 효과도 없었다. 나라를 잃은 지 40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의 효과로 해방이 되어 千辛萬苦 끝에 세운 大韓民國이라는 신생 국가에서 살아온 지 80년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 한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휴전 상태에서 風前燈火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사이 서구 法制와 文化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전통 儒學과 文化는 秋風落葉처럼 점점 사라지고, 서구식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에 편승하여 언제부터인가 權力者의 權力者에 의한 權力者를 위한 법치주의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조선 性理學의 德治主義와 권력자의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생각하게 된다.

지난 10월 말 千年古都 경주에서 3일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 전통과 함께 경제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회의였다. 각국이 各自圖生으로 자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회담이지만, 한편으로 오늘날의 商業主義化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록 관세 무역을 중심으로 한 회의였지만, 경제생활의 상업주의화는 현실적으로 종래의 1차, 2차, 3차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 의료, 교육, 전문 지식,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點火되어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4차 산업으로 진행되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사용가치 그 자체가 利潤 實現의 수단이지만, 그 利潤追求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에까지 도의적 한계를 넘어서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 들어가는 경향을 商業主義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공공성이 강한 의학·법학 등에 이르기까지 巨大化된 매스미디어와 결합하여 사회 기구·인간 행동·문화 구조의 심층부에 보이지 않게 침투하여 인간의 尊嚴과 價値·幸福 追求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학문·교육·전문직의 상업주의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知識의 商品化 및 전문성의 산업화 현상이 현저한 오늘날에 와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 이에 따른 AI 산업의 商業主義化가 인간의 본성을 잠식하여 혹시나 우리 사회에 ‘不幸이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은 自由民主主義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의 산물이며, 결코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법치주의의 산물

이 아니다. 權力者는 국민의 살기 좋은 현상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의 성과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면서도 商業主義化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에 따른 부작용이나,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행복 추구 및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의 관계를 깊이 논의하거나 걱정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政黨政治의 속성인지도 모른다. 한마디 ‘權力者를 위한 法治主義’를 왜곡 포장하여 정권 유지나 쟁취를 최후 수단으로 삼다 보면 ‘국민을 위한 法治主義’는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조선의 性理學은 덕치주의를 강조하고, 統治者가 자신의 道德性과 修養을 백성에 대해 근본으로 삼는 民本思想을 통치 이념으로 하였다. 이 사상은 禮라는 강력한 사회 규범을 통해 신분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여, 수백 년간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權力者를 위한 法治主義’와는 그 학문과 의식 수준에서 사뭇 차이가 있다. 儒學은 당초 禮로써 덕치주의를 쌓았고, 爲人之學과 爲己之學으로 덕과 수양 도리를 窮究하여 이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오늘날 위정자나 권력자에게 그 실천이 요구되는 덕목은 ‘爲己之學’의 修身·齊家와 ‘爲人之學’의 治國·平天下의 학문적·교육적 사상으로서 이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의 정치는 여러 政黨의 활동, 즉 각각의 계급, 각 계층의 이해, 목적을 定式化하여 싸우는 여러 政黨의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政黨政治이다. 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는 不法이며, 또한 법에 따르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다. 정치주의 논리대로 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政治 萬能이 되어 모든 것이 조작되고 독재주의가 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법치주의에서는, 權力者가 자기의 權力이나 權限을 수호하고자 할 때나 국민이 基本的 權利를 수호하고자 할 때에 그 적용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차이가 있다. 정당정치에서 국회의원(立法權者), 대통령 및 각부 장관(行政權者), 판사 및 재판관(司法權者) 등 3부 權力者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이어야 하고, 權力者 자신을 위한 法治主義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法治主義 최후의 보루인 검·판사는 국회 주변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고, 어느 일간지에서처럼 ‘검사 때 밀려나니 변호사 때 몰리는구나’ 하는 비아냥을 들어서도 아니 된다. 儒學의 德治主義와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통치 이념에서는 이러한 상업주의적 발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 이념은 오로지 統治者의 德目이며 信念이었고, 그레야만 백성이 평화스럽고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날 같이 풍요롭고 평화스러운 시대에 權力者의 法治와 德治가 잘 조화를 이루어 국력을 튼튼히 한다면, 국민은 風前燈火와 같은 휴전 상태를 극복하고, 120년 전 조선이 무너질 때처럼 是日也放聲大哭을 외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명 속의 구계서원



구계서원장 문학박사
이 은 식

2000년부터 구암연구를 위해 시작한 나는 구계서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계서원 서원장 임기를 마치고 대관대유계 일반회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차기 대관대유계 이사장, 서원장에게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많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과 무능에 민망합니다. 2년 전(2024년), 구계서원장의 임기를 마치려고 했으나, 서원의 형편상 차일피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무능한 서원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암선생께 민망하고, 문중에 송구합니다. 겨우 작년에 “퇴계선생과 작도정사” 주제를 마지막으로, 구암학술발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현대인은 전통문화의 관심과 계승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난제를 벗어난 역사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퇴계, 남명, 구암 등의 인물, 서원, 향교, 성균관 등의 전통문화 공간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사찰, 교회, 성당도 현대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공간에 출입하는 연령층도 젊은이는 극히 드뭅니다. 구계서원의 대관대유계도 모두 70대를 넘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문화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에는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 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변화는 매우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급박하게 변하는 문화의 관심은 갈수록 가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회귀합니다. 무조건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아우르는 절대적 가치는 다시 가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계서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낡아지고, 노인들의 단체모임일지라도 묵묵히 전승해야 할 책무성으로 비록 오늘은 빛나 보이지 않게 되어도 반드시 회귀하여 역사문화의 인물로 현창하며 전승하여 나갈 것입니다.

저는 나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시작한 구암선생에 대한 공부 지금도 영성합니다. 7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도, 길을 멀고 아득합니다. 제가 아니고 영민한 학자가 처음부터 구암연구에 판을 깔았다면, 구암을 모르는 사천사람들은 없었을 것이고, 학계에도 이미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춘향제에도 문중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인데, 늘 아쉬움과 부끄러

움이 남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아직도 국내외에 구암의 사자후를 기대치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931년 구계서원이 중건되었을 때, 이씨문중은 서원출입이 막혔는데, 그때 많은 고서와 서류, 구암선생이 중국에서 구입해서 벽면에 붙여놓고 살펴보았던 주자의 친필 등이 불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겨우 몇 년 전, 구암총서발간을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구암선생이 방안에 펼쳐놓았던, 병풍이 있다가에 찾아갔더니, 몇 년 전 고물상에서 사라져 버린 아쉬움 등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흥패나 교지는 한 점이라도 어디엔가 남아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서원에 장서각을 건립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6.25때 풍영루에 쌓아 놓았던 목판이 왜 한 장도 남겨져 있지 않을까요? 풍영루는 구계서원 대관대유계의 재산이 아닙니다. 1960년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원을 시청에 기부체납을 할 수도 없는데, 풍영루 등기자의 후손들은 풍영루 포기서 쓰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계서원 강당으로 사용하는 중앙의 건물을 기둥이 삭아서 현재 건물이 10센티정도 주저앉았습니다. 문짝도 낡아 바스러져 손잡이기 빠져나옵니다. 서원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청소도 어렵습니다. 지역문화재 책임자인 시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대관대유계 이사장, 서원장이 선임되면, 그분들에게 구계서원의 쇄신을 기대합니다. 그분들은 문화유산청, 경남도에 끊임없이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일본 봉좌문고에서 가져온 구암선생 서적 중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된 한 권의 서적과 이 서적의 해외반출허가증은 서랍에서 하릴없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창문 밖에는 어둠이 짙습니다.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춘향제에,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이씨문중분들이 정숙하게 구계서원의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국가보물신청 구산사비(龜山祠碑) (서예사적 가치에 대한 종인의 이해)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근 (대종회 총무국장)

구산사비는 1645년에 구산사의 뜰에 비를 세워 선생의 유향(遺鄕)을 기리고 行狀과 事績을 새겨 천세만세(千歲萬歲)에 받들게 하였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대사헌과 우의정을 지냈으며, 선생의 문집에 근거하면, 그는 평생 묘비와 관련된 여러 편의 비문을 지었다. 아울러 비갈(碑碣)의 글씨나 제액을 썼거나, 혹은 그의 글씨를 후인들이 집자(集字)하여 묘비에 새긴 사례가 많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비갈(碑碣)은 대략 23기 정도이다. 그 가운데, 찬(撰)이 18건, 서(書)가 5건, 전(篆)이 6건이다. 특히 그가 비문을 짓고 글씨와 전액까지 모두 쓴 사례는 2기에 불과하다. 즉 <구산사비>와 <척주동해비> 2기만 미수(眉叟)가 직접 짓고 쓰고 전액까지 처리한 것으로 남아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비는 대체로 찬(撰), 서(書), 전(篆)을 맡는 사람이 각각 달라서 비문을 짓고 직접 글씨까지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있다손 치더라도 찬병서(撰并書) 혹은 서병전(書并篆) 정도이다. 때문에, 문장이 뛰어난 사람에게 비문을 의뢰하고, 필명이 높은 사람에게 글씨를 의뢰하며, 자학(字學)과 전자(篆字)에 밝은 사람에게 전액을 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문장에 능하면서 글씨까지 뛰어내고, 게다가 전자(篆字)에도 조예가 깊은, 이른바 ‘금석문삼절’이 극히 드물다. 2013 년도의 현황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금석문이 약 75기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찬자와 서자 및 전액을 쓴 사람이 모두 동일 인물일 때 미수를 제외하면 단 3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금석문 명칭	제작년대	찬(撰) - 서(書) - 전(篆)
한확신도비(韓確神道碑)	1495	임사홍(任士洪)ㄷ
금홍복신도비(金洪福神道碑)	1716	최석정(崔錫鼎)
덕천군신도비(德川君神道碑)	1808	이광사(李匡師)

조선 명비 700여기 중 찬(撰)-서(書)-전(篆)을 1인이 겸한 사례(미수 제외)

이처럼 조선시대 수백 기의 비석 가운데서도 찬자와 서자와 전자가 동일 인물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미수가 찬(撰)·서(書)·전(篆)을 병행한 비석이 2기나 되는 것은 그의 문장과 글씨와 전서가 당대 최고였음을 입증해 준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구산사비>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척주동해비>는 66세에 쓴 것으로, 비액과 본문 모두 미전(眉篆)으로 서사되어 있다. 그러나 <구산사비>는 46세에 쓴 것으로, 그의 초창기 전서와 해서로 이루어진 미수 금석서예의 희귀본이다.

미수의 금석문자 가운데 비문과 전액을 모두 서사한 비석은 <이원익신도비>, <구산사비>, <척주동해비>, <채세영신도비>, <유석신도비> 5기이다. 이 가운데 비문을 해서로 쓴 것은 <이원익신도비>, <구산사비>, <유석신도비> 3기이다. <이원익신도비>는 현재 살필 수가 없고, <구산사비>와 <유석신도비>의 보존 상

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만 두 비의 입비 연대를 고려하면 <구산사비>는 미수의 건장한 전액과 해서에 해당하며, <유석신도비>는 전형적인 노령의 해서와 미전풍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산사비>는 기존의 미수 서체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서체미학의 일국면을 보여준다. 이는 미수 서예의 시종을 파악하는 데 뿌리가 되며, 그의 상고적 서예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이처럼 <구산사비>는 미수의 중년기 서예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最古)의 비석으로, 조선의 금석문 중에서도 역사 그리고 예술적 희소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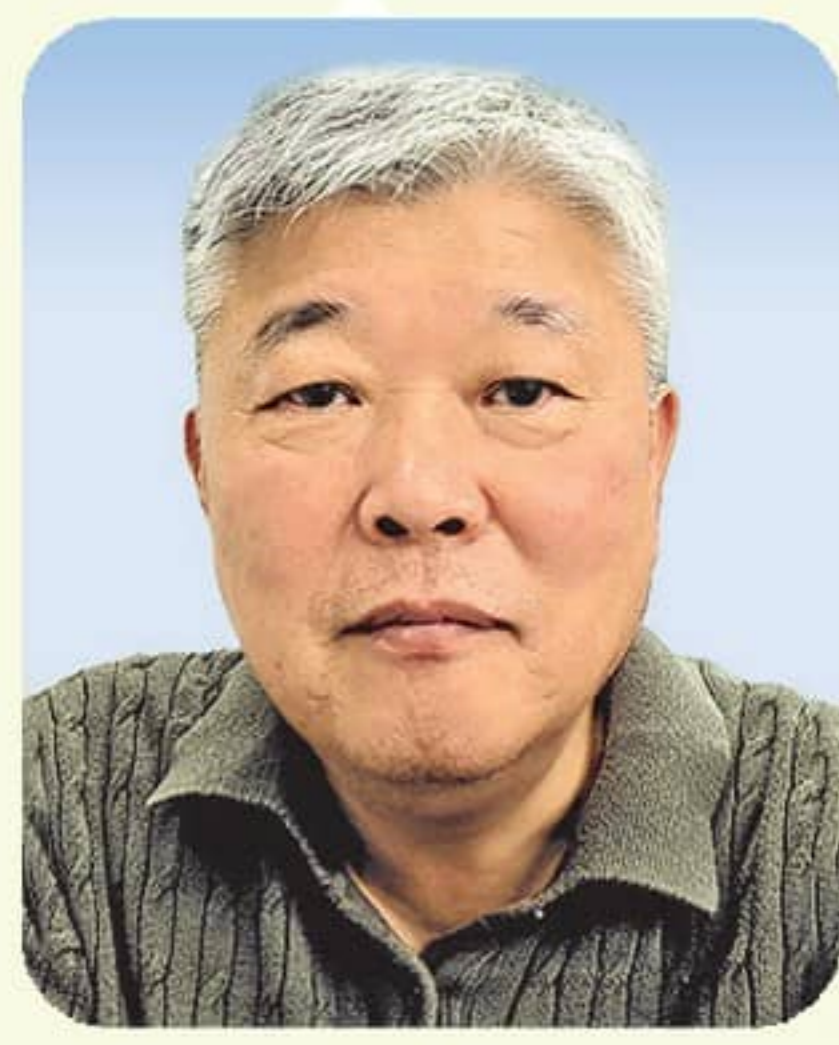
16세기 사천지역 사림(士林)을 대표하는 구암과 17세기 근기남인(近畿南人)의 영수인 미수는 비록 시대가 어긋나서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그들은 <구산사비>를 통해 지금까지 정신과 영혼을 교감해 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산사비>에는 행간마다 구암의 삶과 덕행이 임리(淋漓)되어 있고, 구암의 학덕을 기리는 미수의 필흔(筆痕)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때문에 <구산사비>는 구암의 학문과 미수의 예술이 한자리에 깃들어 있는 정신문화의 표석이다.

다만, <구산사비>는 370여년을 견디면서 오랜 세월 습기와 풍화작용으로 인해 비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가 많이 부식되었고, 비신(碑身)의 전면 하단부위도 일정부분 부식이 진행된 상태이다. 비신의 후면은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전면과 달리 마멸과 부식이 더 심한 편이다. 특히 귀부가 바다와 완전히 밀착된 관계로 앞으로 부식과 산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지대석(地帶石) 보호비각(保護碑閣) 등의 설립을 통해 <구산사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가보물 신청을 위해 구계서원 사천시청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사업비(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崇門之心(종중재산 보존)



성균진사공파 제27세 이인덕

3년 전 종중 시제 겸 총회 때 집안 형님 한 분은 회장, 저는 총무로 지명을 받아 종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중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종중재산권 확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종중재산이라는 것은, 50년전(1975년경)에 일본 거주하던 성균진사공파 26세손 이호용이 화암종중 재실 건축용 토지비용으로 종중에 기부하였고, 이 돈으로 화암마을 토지 약320평을 구입하였으며, 어느 한 사람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3인이 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건축비용 문제로 약 45년 가까이 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최초 지분등기 하신 분 중 돌아가신 분도 계심) 2019년 들어 종중에서 재실 건축 검토 및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차 등기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최초 지분 2/3인 등기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종중에서 안내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나, 1/3 지분 등기되어 있던 종인 A는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문제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서로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인 A는 2019년 당시 자신의 형 C명의로 등기된 지분 1/3을 종인 A의 아들 B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게 한 후, 마치 A나 B가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23. 12. 17. 토지관리 문제로 부산에서 만난 A와 그의 아들 B는, 그 1/3 지분에 대한 권리가 마치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당시 그 땅의 조성 경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종중의 임원이 ‘공시지가로 종중에 매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종중에서 실거래가로 구입할 것을 요구’ 하는 등으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종중 임원진에서 종인들을 상대로 기부 경위, 토지 조성, 최초 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종인 A와 그의 아들 B는 그 땅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음이 명백함’을 확인한 후 부산을 재방문하여 A, B를 상대로 권리주장의 부당함에 대하여 말하자, 그때 서야 B는 ‘5년 전 등기이전 해 오는데 소요된 비용’, ‘A가 일본거주 기부

자료부터 돈을 받아온 수고함’ 등을 거론하며 ‘2천만 원을 주면, 종중에 이 전해 주겠다’고 하므로, 종중 이사회, 종중 임원의 재논의를 거쳐 2024. 4. 9. 사천시 용현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B를 만나 금 1,650만원을 지불하고 종중 의견대로 등기이전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법적 소송 의견도 있었으나 소송 간의 기간 소요, 비용, 무엇보다 소송의 불미스러움 등을 고려 종결하기로 하였고, 차후 이러한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인들에게 종중재산 관리의 경각심에 대해 알리는 등 조치할 것을 종중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중 재산 분쟁사례는 다른 문중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종중재산 분쟁은 개인의 욕심과 종중재산 관리의 허점이 그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중 재산을 지키는 일은,

1. 종중 재산목록은 종중 임원 몇몇만 알고 관리하는 것 보다 시제 및 정기총회 등의 기회에 종인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종중재산에 대하여 전 종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 등기된 종중 재산은 등기명의인이 임의 처분 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족보 등재작업이 추진되는 점에 착안하여, 주요 경력, 상훈 등 자랑거리를 기재하는 것처럼, 종중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종인에 대해서는 종중회의를 거쳐 그 선행을 족보에 기재하고, 개인의 사욕으로 종중에 위해를 끼친 사례도 그 사실을 족보에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도 교훈이 되지 않겠는지 생각해 봅니다.

본 사례는 종중의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공유함으로써 종중 재산을 지키는 관심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 재실 토지 마련을 위해 모였던 종인들 (대부분 돌아가심, 좌에서 2번째 이승열)



1975년 성균진사공파 집성촌 정동면 화암리 전경(사진제공 이승열)



선무랑공파 제24세
이 경 숙

나의 땀을 담은 삶(대통령 표창 수기)

21년 전 가을, 국화꽃이 만개한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봉사 단체인 '다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저와 근무하던 동료들, 그리고 하동군 농협 직원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은 10년 전 2013년 당시 하동군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님과의 우연한 만남이 재향군인회 여성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여성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생활에도 주말만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다사랑'은 회원들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진교면 인근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와 양치질, 산책, 청소와 빨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돕는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처음 마주한 저의 초등학생인 딸과 유치원생인 아들은 놀라며 낯설게 여겨 무서워 안 가려 했지만, 저 역시 처음인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눈 맞춤 한 번,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산 교육이고,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달래

어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번의 계절이 바뀌고, 요양원 어르신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이제는 제 부모님처럼 느껴졌고, 어르신들의 그 기다림 가득한 눈빛, 아쉬움 가득한 손길이 저에게 봉사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으며, 20대의 건장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된 아들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봉사가 몸에 익숙해진 저는 2013년 하동군재향군인회 여성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회원들과 함께 만든 국과 반찬을 지역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2017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고 경남하동군협의회 17~22기 일반자문위원으로서 민주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 및 각 세대와 활발히 소통하고 민주평통 하동군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본보기가 되는 지역의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나눔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진교면 회원들과 진교 축산물 축제, 술상 전어 축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차(茶)를 판매하여 얻어진 수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돕는 일들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위 필자는 하동군 진교면에 고향을 두고 있으며, 친정 아버지는 휘(諱)득용(得龍, 23세, 보명 : 填德)이고, 큰 오빠는 태식(泰植)이다.

홀인원(Hole in one)



우소재공파 제27세
이 경 문 (講名 문준)

골프라는 스포츠는 홀 컵(Hole-Cup) 안까지 적은 타수로 공을 넣어야 하는 스포츠로서 과거에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로 인식되고 발전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드(Field)에서 이루어지는 골프와는 달리, 공원 등에서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Park Golf)가 대한민국을 들쭉이게 하고 폭발적인 골프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또 한편 골프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스크린 골프장의 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또한 대중회 소식지 뿌리 11호(2025.04.20.발행)에 산전·수전·공중전이라는 제목으로 스크린 골프에 입문한 지 1년의 골린이(골프 어린이)가 골프의 난해 함에 대하여 기고한 바 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짧은 기간 경험이지만 생각과 결과가 따로 나타나기 때문에 골퍼(Golfer)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 성적은 신선처럼 하늘을 날고, 다른 날은 진흙탕에서 헤매고, 스크린 골프를 지인의 권유와 지도로 2025년 02월 02일 82살에 처음 입문했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어 2년이 지나는 지금, 과연 골프의 꽃은 무엇일까?하고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골퍼(Golfer)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녹색의 넓은 잔디 정원에 시원스럽게 솟구치는 하얀 공을 즐기며, 화려한 비거리를 과시하는 드라이브 샷(Driver Shot)? 아니면 최종 스코어(Score)를 결정하는 기술, 샷 게임(Shot Game)의 꽃이라는 퍼팅(Putting)? 또 아니면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매우 행운이 따르는 샷(Shot), 영광스럽고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는 홀인원(Hole in one) 등, 그 외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꽃 중의 꽃은 단연코 홀인원(Hole in one)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문헌에 의하면, 단 한 번의 샷(Shot)으로 공을 홀 컵(Hole cup)에 넣는 가장 짜릿하고 구름을 타는 듯한 황홀함, 홀인원을 한 번 하면 3년간 행운이 따른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행운의 상징이라 했으며, 아마추어 골퍼(Golfer)가 홀인원(Hole in one)을 성공시킬 확률은 12,000분의 1 정도로 매우 희박하고, 싱글(Single : 73타-81타) 골퍼(Golfer)는 5,000분의 1, 프로 골퍼는 3,500분의 1(이상 Naver 검색에서)이라고 하니 홀인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히 짐작이 가고, 복권 당첨 수준의 행운으로 평가한다네요.

홀인원(Hole in one) 부상(상품)을 보면, 보통 중소형 국산 차부터 1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까지 골프 경기장서 자주 볼 수 있으니, 골프의 꽃 중의 꽃은 홀인원(Hole in one)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 보듯 그렇게 낮은 확률, 저에겐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행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경 합천 지인들과 월 1회 스크린 골프 모임에서 고향 사랑으로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아델스코트(Adelscott) 골프장을 선정하고 후반 힐 코스(Hill course) 7번 홀(Hole)에서 청량하고 깨끗한 홀 컵(Hole cup) 소리, 땡그랑 땡 땡 땡 하는 소리가 끝나는 순간, 광광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축하 굉음, 영상이 나와 깜짝 놀란 동료들도 침묵하다가 "홀인원(Hole in one)이다"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스크린(Screen) 홀인원(Hole in one).

아델스코트(Adelscott) 힐 코스(Hill course) 7번 홀(Hole)은 Par3,158.9m, 높이는 -4.2. 바람은 북 서풍 4.1m/s. 제가 사용한 클럽(Club), 5번 우드(Wood)로 공략했던 것이 행운과 함께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구력 17개월 골린이(골프 어린이)가 홀인원 문화에 대하여 아는 바 없어 동료에게 물었더니 몇 가지 알려주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게임비,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끝났지만, 필드(Field)에서 일어나는 홀인원(Hole in one) 관례로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한턱 문화'로, 동반자나 캐디에게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며, 비즈니스(Business) 차원에서는 금액의 부담이 커, 홀인원(Hole in one)을 대비한 보험도 든다는 데, 차츰차츰 합리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라네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곳은 프렌즈 스크린(Friends screen) 골프장인데, 난이도 세미프로(Semi-pro), 티 박스는 옐로우(Yellow)에 놓고, 작년 12월과 올 02월에 80, 79 타 싱글(Single ; 73타-81타)을 쳐서 모임 규정에 따라 한 번만 더 싱글을 치면 난이도 프로(Professional ; 3/4단계), 티 박스(Tee box)는 화이트(White ; 3/5단계)로 올려서 치게 됩니다.

24개월 초보, 83살의 골린이가 골프 공, 여의주를 물고 승천(승급)하게 됐다고 모두가 야단 들입니다. 홀 인 원(Hole in one)을 하던 그 날!! 2025년 07월 31일, 07번 방, 아델스코트(Adelscott) 힐(Hill) 코스 07번 홀(Hole). 07, 07, 07, 고향 합천 골프장에서, 골프를 시작한 지 17개월이 되는 날, 홀 인 원(Hole in one)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울 림



참의공파 제25세
이 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나 명쾌한 해답이 없는 질문이 있다.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무궁무진하고, 이에 대한 조언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하여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늘 있기는 하지만 늘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동양의 성인으로 추앙(推仰) 받는 공자 또한 사람에게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음직 추측하여 보지만 공자님께서 사람은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물론 필자의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다만 공자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己)'와 '다른 사람(人)'으로 구분하여, 그 '해야 할 바'와 '관계'에 대하여는 술한 말들을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황금률(黃金律)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 - 논어 제12편 안연(顔淵2-) " 라는 말이다. 이처럼 공자는 '자기 자신(己)'을 비롯하여 '사람(人)'을 상대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정의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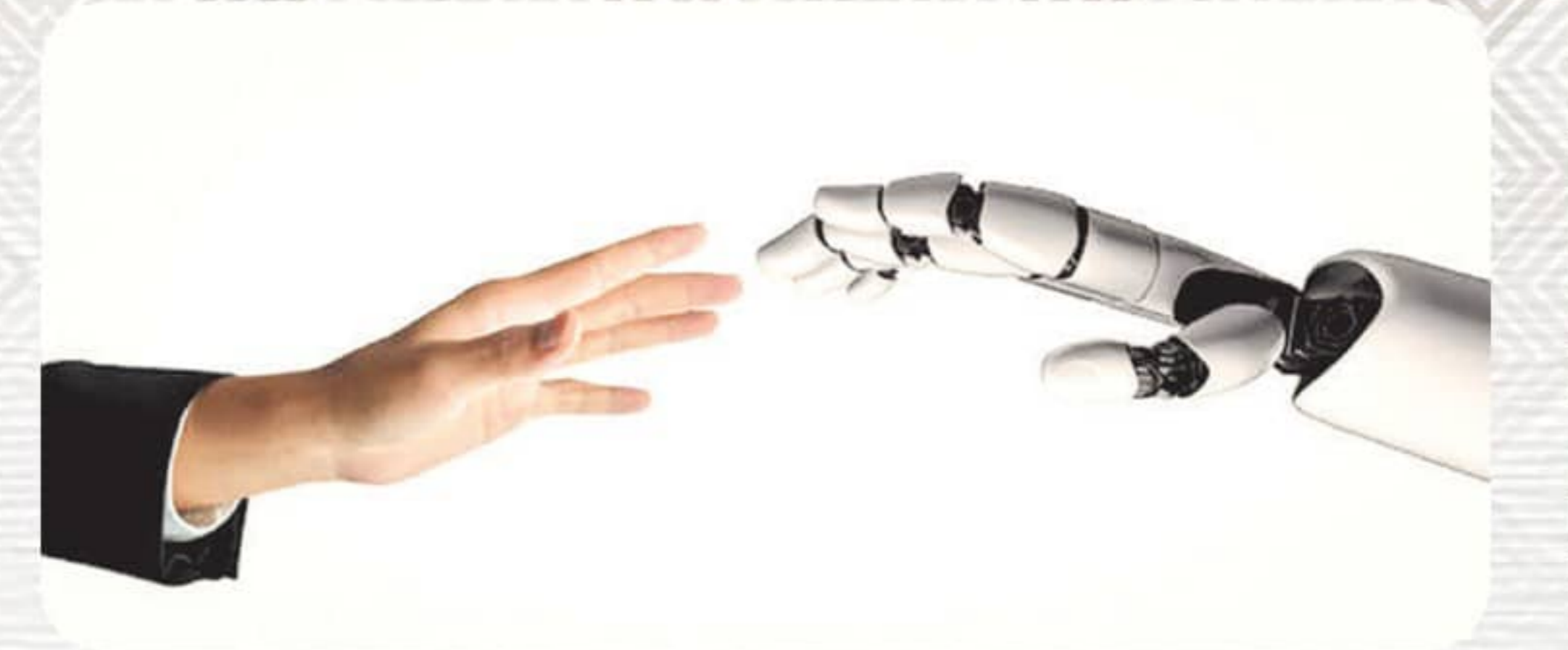
먼저 자신으로서의 자기(己)이다. 자기는 스스로에 대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공자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자기'는 '늘 배워야 하는 존재(學而時習)'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배우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공자는 이른바 평생학습주의자다. 나아가 스스로는 '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군주는 군주다워야 한다며 사람은 불러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답다'라는 '정명사상(正

名思想)'이다. 이 세상에 홀로뿐인 자기 스스로는 늘 끝없이 배우고 익히면서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人)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질고 자애(仁)로워야 한다고 말씀한다. "번지가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 번지문인(樊遲問仁) 자왈애인(子曰愛人)'이라 하였고, 지(知)에 대하여 묻자 '사람을 아는 것 - 문지(問知) 자왈지인(子曰知人) - 논어 제12편 안연(顔淵22-) "이라 하였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의무고, 다음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공자님의 인간관에 따르면 세상에서의 병리(病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엔 또 다른 사람 아닌 사람이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사람보다 능가하는 능력들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제 역량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 아닌 사람에게 모두 맡기려는 새로운 풍조가 급속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이른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이다.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주어진 자료(DATA)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고 계산능력과 판단력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다만 상상력, 창조력,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더욱 낫다. 어떻게 이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계 정립도 하여야 할 세상이 되고 있다.

어떻든 세상살이는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 그리고 기계 인간에 대한 관계 정립도 하여야 할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한다.



사천(동성)이씨 고족보

(현존하는 8편 중 신묘보에 관하여)



선무랑공파 제24세 이영근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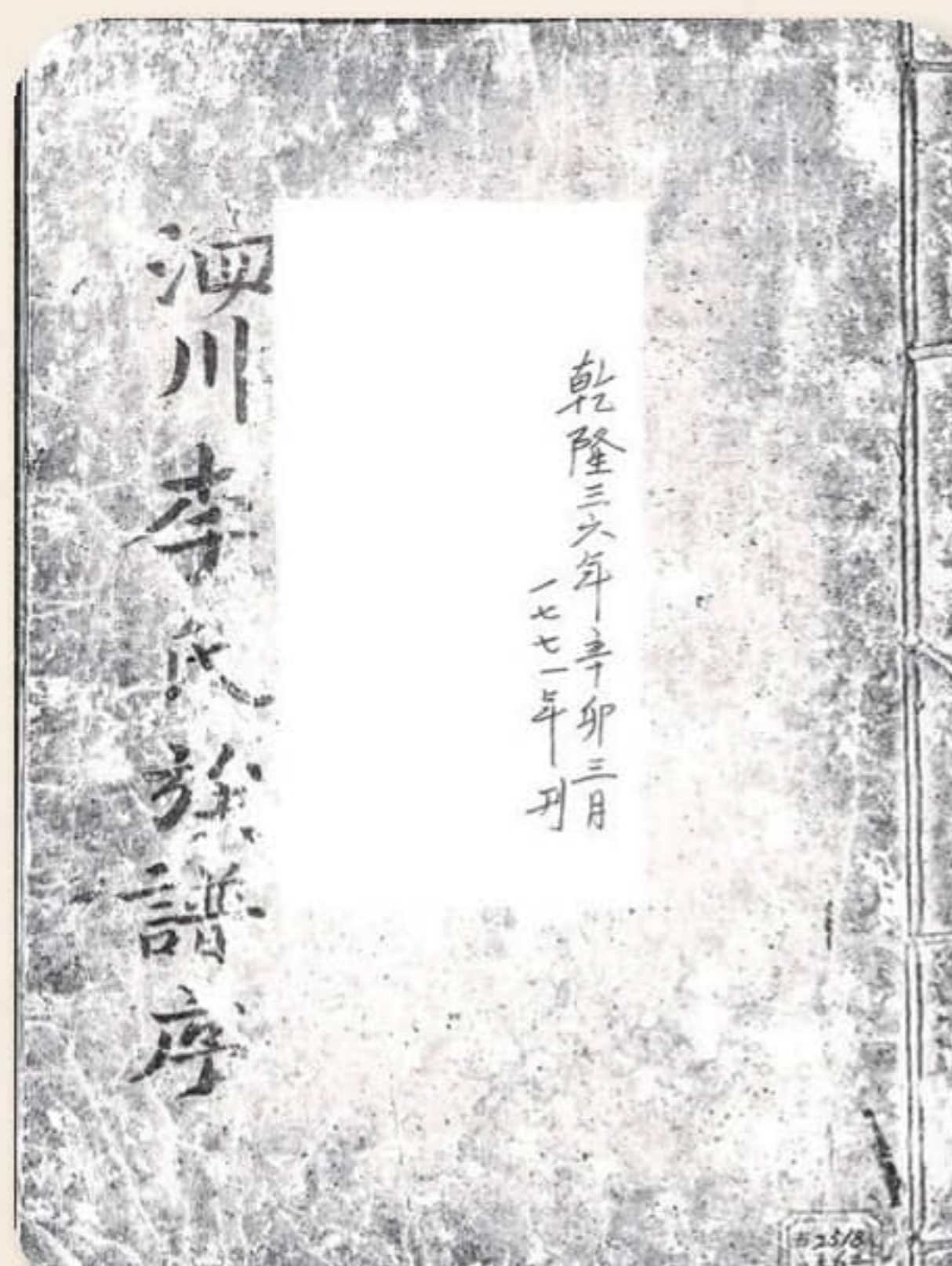
1. 현존하는 족보

보명	년도	발행자(都有司)			서문 기록			비고
		파	세수	이름	파	세수	이름	
辛卯譜	1771	참지공파	17세	인재	참지공파	17세	시우	
丙申譜	1836				참지공파	20세	규진	(자료부족)
乙亥譜	1875							(자료부족)
己亥譜	1899	참지공파	24세	대숙	참지공파	24세	병철 대숙	
丙寅譜	1926	백인재공파 참지공파	22세 21세	태환 희연	참지공파 백인재공파	21세 22세	희연 태환	
乙未譜	1955				선무랑공파 참지공파 생원공파	21세 23세 24세	규홍 경환 정호	(자료부족)
癸丑譜	1973	생원공파	24세	정호	참지공파 생원공파	23세 24세	경환 정호	
戊寅譜	1998	참지공파 참지공파	24세 24세	재을 기수	백인재공파	23세	덕조	

2. 辛卯譜(신묘보, 1771년, 도유사-회장:인재(仁樺))

가. 신묘보 서문1(東城李氏族譜序)의 번역

이씨(李氏)의 선조는 계통이 사천(泗川)에서 나왔다. 상사(上舍) 정두(鄭斗)가 기록한 구암공(龜巖公, 이정)의 행장(行狀)에 이르기를, “국자진사(國子進士) 휘(諱) 세방(世芳)의 후손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고조(高祖) 이상 12대 동안 대대로 사마(司馬, 생원·진사)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성균진사 이이륜(李彝倫)은 구암공에게 실로 고조부가 된다.



이제 그 가문의 보첩(譜牒) 중 남겨진 단편적인 기록을 살펴보니, 영동정(永洞正) 세방(世芳)은 보승랑장(保勝郎將) 언(彦)을 낳았고, 언은 담양고도(潭陽敎導) 선생 자(繼)를 낳았으며, 자는 이륜(彝倫)을 낳았다. 계보에 실린 것이 겨우 4세(世)뿐이다. 그러다 한 장의 종이에 기록된 것을 얻었는데, 영동정(세방)의 위에 진사 충수(忠壽)와 생원 종(琮) 2대가 더 있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독 세방을 (족보의) 시조로 추대하여 언급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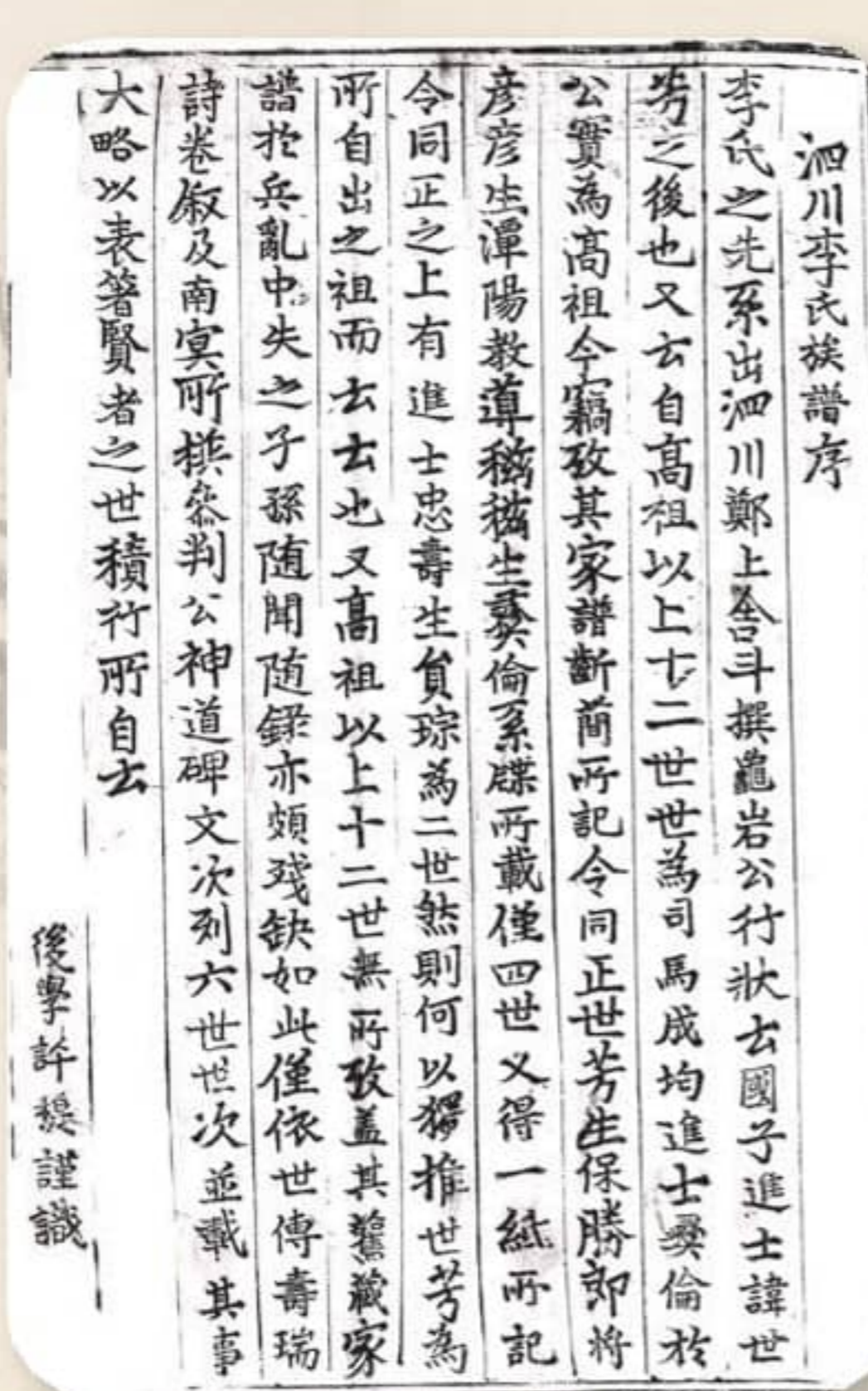
또한 고조 이상 12세에 대해서는 고찰할 길이 없다. 대개 그 집안에 대대로 소장해 오던 족보를 병란(兵亂) 중에 잃어버려, 자손들이 들은 대로 기록하다 보니 이처럼 몹시 불완전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겨우 대대로 전해오는 ‘수서시권(壽瑞詩卷)’의 서문과 남명(南冥, 조식) 선생이 지은 ‘참판공(參判公) 신도비문’에 의거하여, 6대의 차례를 나열하고 그 일의 대략을 함께 실음으로써, 현자(賢者)의 가문임을 드러내고 덕행을 쌓아온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

후학(後學) 양천(陽川) 허목(許穆, 1595년-1682년)이 삼가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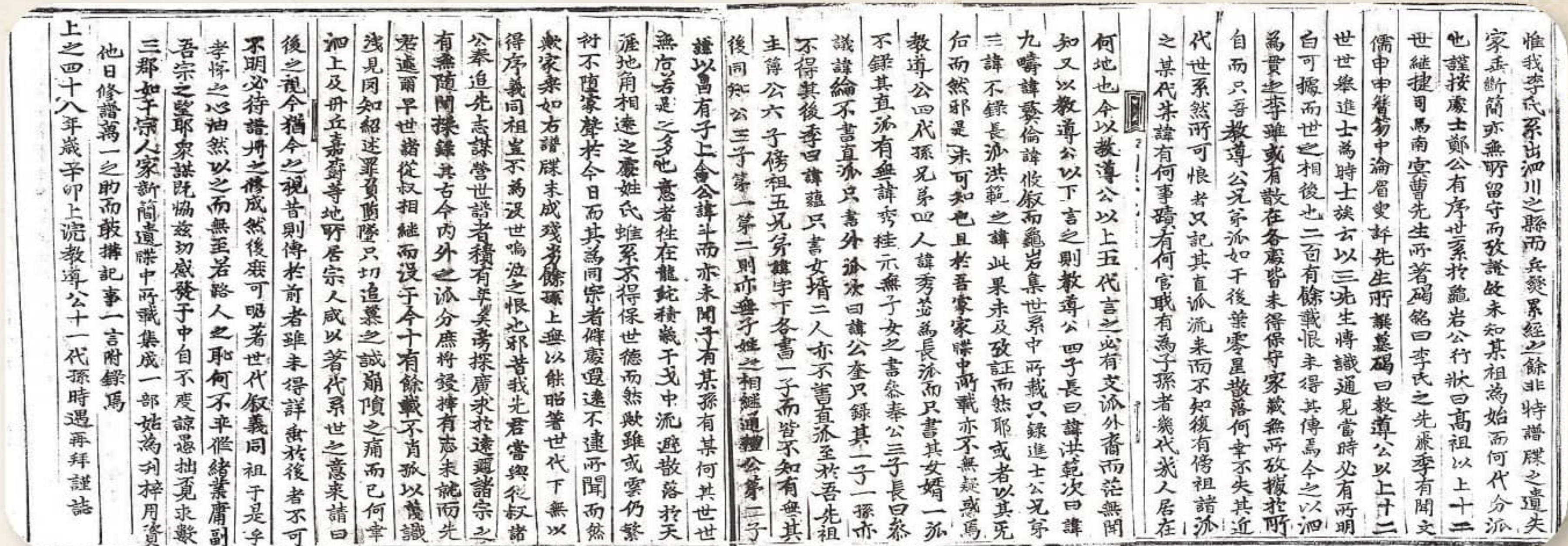
나. 서문1 원본

東城李氏族譜序(1771 신묘보에 있는 원문, 타 족보에는 몇 자의 오자가 보였다.)

李氏之先系出泗川鄭上舍斗撰龜巖公行狀云國子進士諱世芳之後也又云自高祖以上十二世世為司馬成均進士彝倫於公實為高祖今竊攷其家譜斷簡所記令同正世芳生保勝郎將彦彦生潭陽敎導先生繼繼生彝倫系牒所載僅四世及得一紙所記令同正之上有進士忠壽生員琮為二世然則何以獨推世芳為所自出之祖而云云也又高祖以上十二世無所攷蓋其舊藏家譜於兵亂中失之子孫隨聞隨錄亦頗殘缺如此僅依世壽瑞詩卷叙及南冥所撰參判公神道碑文次列六世世女並載其事大略以表著賢者之世積行所自云後學陽川杵穆謹識



다. 서문2 원본



라. 해설

미수 허목(眉叟 許穆)의 생졸은 1595년-1682년이므로 1771년 辛卯譜(신묘보)에 직접 썼을 리는 없고, 살아있을 때 썼는데, 1659년(己亥)에 보첩을 만들었고 허목(許穆)이 서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여기 서문에서 거론된 6대의 차례는 휘(諱)세방(4세), 언(5세), 자(6세), 이륜(7세), 맹주(8세), 이변(9대)이며 이를 나열하고 그 일의 대략을 함께 실었다 한다. (참판공신도비문 참고)

허목(許穆)은 구암선생의 손자인 곤변의 손녀 남편인 허의(許懿)의 형으로, 제수(弟嫂)인 사천이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휘(諱)담(10세), 정(11세), 응인(12세), 곤변(13세), 대일(14세, 허의의 장인)까지 거론되었을 수도 있겠다.

1771년 신묘보를 만들 때 이를 참고하였고 따라서 서문1로 삼았으며, 그 뒤 서문2에서는 흠어져 있는 가승의 세계안(世系案)을 찾아 더 보완하여 휘(諱)세방(4세)의 위쪽에 시조, 충수(2세), 종(3세) 상고해 넣고 전란으로 흠어진 자료 중 더 많은 내용을 찾아 보완한 것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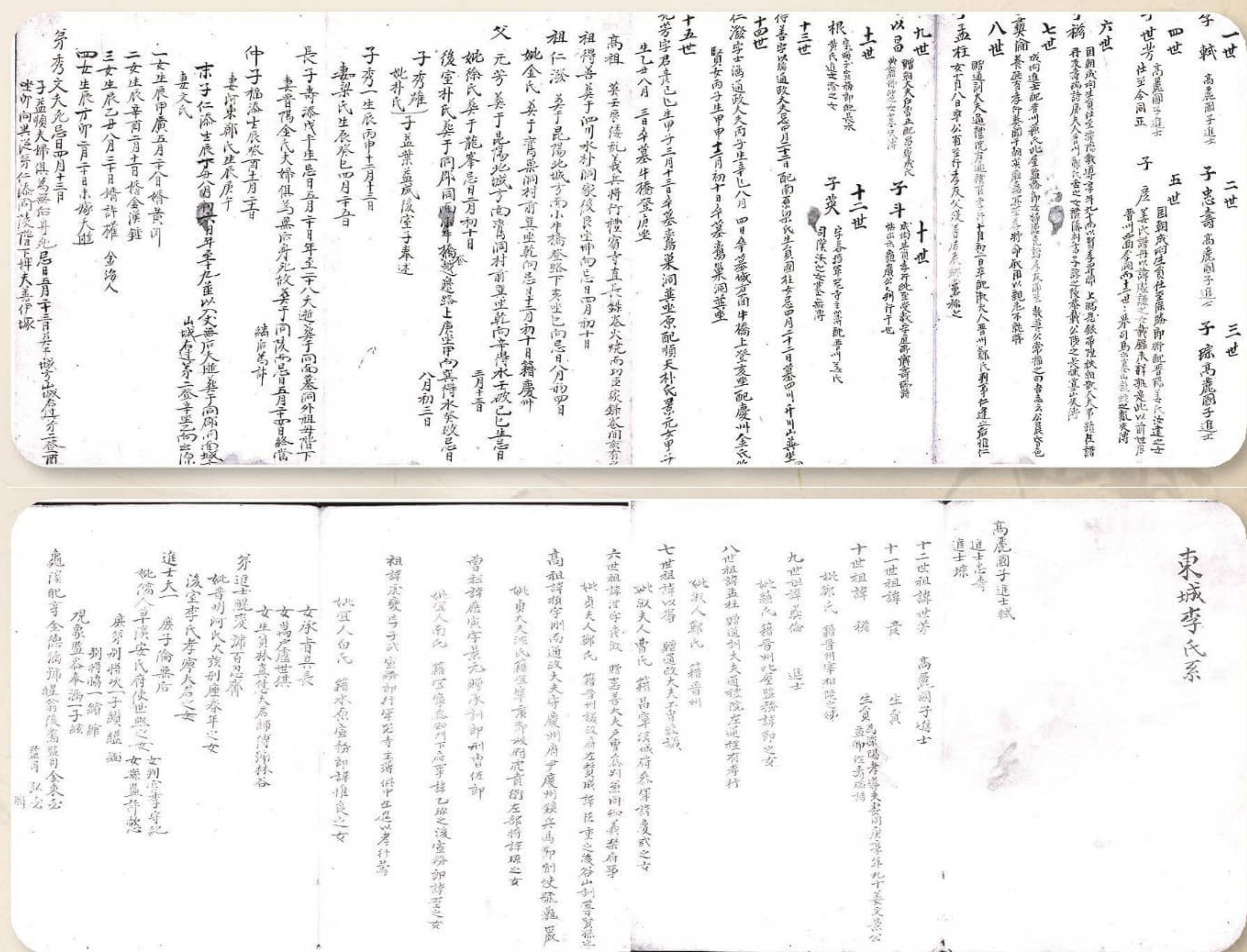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의 족보 병신보(1836년) 서문에 의하면 신묘보(1771년)는 수단 가운데 항렬이 서로 어긋나고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여 가승에 기재된 대로 단지 파보를 두 편으로 만들어 후일을 기대하였고, 병신보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참고 자료[1] 마지막 페이지

- 발행년도: 乾隆36년 辛卯(1771년) 3월
- 발간처: 진주 봉대암
- 校定有司(교정유사): 시우(時遇) 참지공과 1725-1785
- 都有司(도유사, 회장): 인재(仁樺) 참지공과 1700-1773, 자는 덕이(德而) 호는 매와(梅窩), 가선대부(嘉善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4. 참고 자료[2] 가승 또는 세계안 예 [이영섭 회장 소장자료]



사천(동성)이씨 대동보(족보) 발간 계획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족보발간위원회

우리 대종회에서 새 대동보(족보, 丙午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 족보를 만들고 자료가 충분히 모여지면 인쇄하여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2026년 9월에 대동보(족보)인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인터넷 족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폰에서도 “사천이씨.com”하여(회원등록 후), 인터넷 족보열람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고칠 내용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족보 인쇄 전(8월 이전)까지 우리 종중의 수단(자료)수집 담당자 또는 대종회 부회장 이영근(족보편집위원 010-2586-2094, leeyggm@gmail.com)으로 자료를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동보(족보)인쇄를 하게 되면 향후 30년 뒤에나 다시 인쇄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사오니 인쇄 전에 돌아가신 분(卒日, 墓地), 새롭게 가정을 이룬 가족, 자손(외손 포함) 등을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족보의 구성

권	내용	비고
1권	각종 사진, 역대 족보현황, 씨족의 연원과 성관, 세거지, 記, 文, 문행록, 譜序, 행장, 묘갈명, 상계(시조~10세조), 후기, 부록	
2권	참지공파, 진사공파, 참의공파, 첨정공파	
3권	우소재공파, 백인재공파	
4권	성균진사공파, 선무랑공파	
5권	생원공파	

금번 대동보(족보)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배포합니다.

연번	형	내용	구매 권수	금액
첫째	A형	족보 전질(1권~5권)	다섯 권을 구매	20만원
둘째	B형	1권(상계)+해당 파가 있는 권	두 권을 구매	10만원

금번 족보 인쇄의 수량은 한정판으로, 구매 희망하는 부수로 인쇄하고자 합니다. (지난 戊寅譜는 많은 부수가 남아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 인쇄하기 어려우니 숙고하셔서 많이 구매 그리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2026년 6월말까지 해당 소문중의 수단(자료)수집 담당자에게 구매희망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어, 대종회로 모두 모여지는 대로 대동보(족보)를 제작한 후 택배(정확한 주소) 또는 인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동성)이씨대동보(족보) 구매 희망서					
파명	世	세	관리 번호		
이름	전화번호	父의 譜名 (족보 검색용)			
주소	우편번호				
구매 희망 내용					
형	구매 형태	권수	단가	구매 세트 수	비고
A형	족보 전질(1권~5권)	다섯 권을 구매	20만원	세트(set)	
B형	1권 + 해당 파가 있는 권	두 권을 구매	10만원	세트(set)	
				합계	만원
				족보 예약금 기 송금액	만원
				입금 족보대금	만원
				입금자 통장표기명 ()	
족보관리 계좌번호 : 농협 351-1285-4126-63 사천(동성)이씨대종회					
위과 같이 대동보(족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이름 인 또는 사인					
사천(동성)이씨대종회 대동보 발간위원회 귀중					

※ 위 양식은 대종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활용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



백인재공파 제25세 이형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 순간에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며, 그 결과 역시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또 알맞은 '선택과 결정'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결과가 두려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선택과 결정'이다.

누구나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항상 주저하게 된다. 선택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쁜 결과가 나와서 본인과 타인 조직에 해를 입히지 않을까? 갖가지 고민 탓에 '선택과 결정'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다. 아주 의지가 약하고 지식이 빈약하고 고민을 넘치 못하면, 부모를 괴롭히는 원망과 탓을 일삼으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삶의 사냥감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어려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찾고, 둘째, 내 삶의 주체는 '남'이 아닌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며, 셋째, 주변의 눈치를 보았던 '나'를 탈피하고, 넷째, '나'를 믿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나은 '선택과 결정'이다.

소식지 13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13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 마시고 보내주시면, 정성 들여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선조 이야기, 소문중 소식 또는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사천(동성)문화 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13호 발행 일시** : 2027년 3월말, 대종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gm@gmai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랑공파 제24세, 010-2586-2094)